

< 10월 11일 주일 가정예배 설교 >

* 성경본문 : 출애굽기 32:13-14

* 설교제목 :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살린다

(출애굽기 32:13-14)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역사를 배워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능한 한 사람의 고민과 결단이 가정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지역을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과 결단이 한 민족과 온 세상을 살립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쓰임 받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당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한 사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40일을 종일 금식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편 모세가 올라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찾기로 합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며 열심히 뛰어놀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두 죽이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눈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

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번번이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백성들을, 모세도 용서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감정을 넘어선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의 위기를 벗어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동족을 살립니까?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넘어선 사랑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일으키고 동족을 살립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동안 옆의 사람을 탓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복되게 할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기도하며 온 세상을 살리는 또 다른 모세가 되십시오. 어려운 이 시대! 우리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된 날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하며 사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증보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